

\*\*\* 이 주간에 묵상할 말씀 \*\*\*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7 : 11,12

\* 민경업 목사 방송 설교 : AM 1190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우리의 감사

- **십일조** : 강순희/강정희 김성수/유순덕 김줄리아나 명성천/경란 박민철/김경숙 박진/현숙 박형근/최영외 백승우/경화 송황외/미서 신동국/소피아 신영구 우중복/정은 유병호/혜진 이민중/수남 임창열/내숙 정문수/명옥 정태호/최신자 표미희
- **감사헌금** : 김기자 김신희(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영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민경업/미숙(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예레미야 우대옥 유병호/혜진(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수잔(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원/정균(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민중/수남(하나님, 규혁이 용자 라이선스 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선채 이재문/김지수(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애덕(7월도 은혜 가운데 지남에 감사드립니다) 최영희(한국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 **주일헌금** : 김수영 김완섭/향영 배준한/광자 신동심 양기수 윤미경 이경숙 이정화 임막동/정숙 전영각/경심 정영숙 정태수/한재연 조종현/미셀 최경호/사라 한성민(나침반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명7명
- **건축헌금** : 강그레이스 송영찬/영진/영수 이범식/영순 흥민자
- **선교헌금** : 김성수/유순덕 명성천/경란 서상연/지연(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송황외/미서

- 별도의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거나,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헌금자 명단에 빠진 분은 연락해주시시오.
- 115헌금은 한(1) 가정이 한(1) 주에 \$5이며, 모기지 헌금과 함께 건축헌금에 포함됩니다.

헌금 총계 : \$6,650.00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8).

□예배 도우미 .....

		8/7	8/14	8/21	8/28
대표기도	주일 1	한홍철	강손희	백승우	민병수
	주일 2	한홍철	강손희	백승우	민병수
토	8/6신동심	8/13유순덕	8/20강손희	8/27김신희	
1부간식봉사	반석(백승우)	포도원(명성천)	권사회	사랑(박내원)	
2부점심봉사	반석(백승우)	포도원(명성천)	권사회	사랑(박내원)	
안내위원	이명원 이민중 임창열 임내숙 박내원 박소정				
헌금위원	백승우 이민중 박소정				

1.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시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어서 속히 남북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2. 우크라이나, 아이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미얀마의 조현직, 정윤희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4.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가 나이만큼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소서.
5.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소서.
6. 우리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지상명령에 충실하게 하소서.
7.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강단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8. 요일별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	월	이영순 성병연 박해용	화	전순혜 나종원 이민중
수	김병은 윤상월 박종미	목	양은영 김조앤 백덕임	금	김연권 최영자 서상연

<파송> 캄보디아/김창규 · 정영란(1가정)

<후원> 나미비아/임선희, 러시아/길요한 · 남지연, 김문일 · 성숙, 멕시코/전재철 · 순혜, 미얀마/이 동 · 수잔, 조현직 · 정윤희, 브라질/이영대 · 애심, 인도/김덕래 · 초미성, 중국/이주열 · 지희, 한국(본부)/이주희 · 변희예(10가정)

<기관> 미국 컴미션(이재환)  
북한 새터교회/강철호(한국) · 빛나라선교교회/이중환(미국)  
중국 GBM(안경숙)  
한국 이랑학교(정용갑)(5기관)

담 임	민경업 목사	시무장로	우중복 장로
행정	류경진 목사		강손희 장로
			백승우 장로
교육부	신소피아 선교사	찬양팀 리더	조종현 집사
한국학교	정영숙 사모	반 주	김신희 권사
			류마리아 사모

주일예배 : 1부 - 8시 / 2부 - 11시  
토요새벽예배 : 6시 30분

- 교 육 부: 주일 오전 11시[108]
-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5시30분 [본당 & 라이브톡]
- 주일장로기도모임: 오전 10시[101]
- 나침반한국학교: 주일 오전 10시[102]
- 주일권사기도모임: 오전 10시[107]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714-403-2193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예배초청 I nvocation	민경업 목사
찬양과 경배 Praise and Adoration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실로암) 내가 매일 기쁘게(191)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528)
찬양	사도신경
기도 Prayer	온 천하 만물 우리러(69)
찬양	한홍철 장로 다같이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기쁨213)
말씀선포 Worship thru Proclamation	1부/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기쁨189) 2부/에이레네-우리 주님께
헌금 Worship thru Offering	<리얼 크리스천 시리즈 (3) - 희락> <b>“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b> 시편 97 : 1-12 (구약 p.873)
인사와 교제 Koinonia	온 땅이여 주를 찬양(기쁨400)
찬송 Worship in Song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기쁨56)

말씀묵상새벽기도회	토요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
<b>민경업 목사</b> 본당	<b>민경업 목사</b> 본당

\* 말씀묵상새벽기도회를 집에서 “라이브톡”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면 류경진 목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 “세계를 위해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

1983년 한국의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장장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10만 여건의 이산가족이 신청하고 5만여 건이 방송에 소개되었고, 만여 건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습니다. 그때 사실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울었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순간 함께 웃으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방송물은 세계 방송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유산이어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입니다. 저 역시 그때 어서 속히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남북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현이 어려운 통일보다는 평화 협정을 맺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입니다. 실제로 이산가족들의 95% 이상이 고향으로 인해 이미 세상을 떠났고,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혼란, 그리고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 남북간의 현격한 차이와 격차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사건”이라고 말한 것처럼 통일은 일대 대박사건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통일이 되면 아마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통일의 문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인 유물사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동족 2천 5백만 명을 극심한 억압과 통제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들은 공공연히 무산계급에 의한 세계 전복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이 문제는 평화 협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 실력을 키워서 대항해야 할 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교회에서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와 <남북연합 청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에서 통일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우리가 더욱 힘을 키우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 진지한 노력으로 남북의 통일을 이루되, 반드시 평화 통일이어야 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어서 속히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꿈을 이루어 세계를 위해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M]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소서!”(북한선교 복음컨퍼런스, 7월 31일)

### □ 지난 주 방문하신 분

- 서창권 목사, 사모
- 조슬린, 김나래, 제임스
- 한성민 선교사
- 브라이언

### □ 교회소식.....

#### 1. 교회차림 24주년 기념사역 :

- 1) 감사예배 : 21일(주일) 1, 2부 예배
- 2) 특별새벽기도회 : 15-20일 / 월-금 5:30, 토 6:30

• 강사 : 민경엽 목사      • 주제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일시	15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20일(토)
기도	우중복	백승우	민병수	박내원	이명원	강순희
찬양	순장부부	권사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당회원부부	에이레네 찬양대
성경봉독	문은주	신동심	김신희	김줄리아나	강정희	우정은
성경본문	창세기 8:1~12	창세기 8:13~22	창세기 9:1~17	창세기 9:18~29	창세기 10:1~32	창세기 11:1~9

#### 3) 특별 교육 세미나 : 21일(주일) 오후 1시

- 강사 : 유수연 사모 (ABC교육구 교육위원장)
- 주제 : “미국 교육의 현실과 우리의 자세”

2. 선교후원교체 : 아프가니스탄의 양수진 선교사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후원을 중단하고, 미얀마의 조현직, 정윤의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조현직 선교사님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로 25년여를 섬기셨고 현재는 미얀마에서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3. 교회당 청소 : 남선교회에서 시행하는 교회당 청소가 13일 토요일새벽예배 후에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미얀마에서 온 편지.....

동역자 후원자 여러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소식과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림으로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미얀마 소식보다 더 많이 보도되면서, 국제적으로 잊혀 가는 미얀마는 군부정부와 민간정부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 집에서 50미터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작은 폭발물이 터지기도 하면서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여기도 쿠데타 전에 달러당 1300짜 하던 환율이 어제 2400짜에 환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달러 부족으로 정부가 바짝 달러 유통을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동차조립공장들이 다 정지 상태라 자동차 값도 올라가고, 기름 값도 2000짜(거의 1달러/리터) 하던 것이 며칠 전에 국가에서 조치를 했는지 1750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도 산유국이라 한국보다는 아직도싼 편이죠. 당연히 택시비도 두 배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한때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안판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었고, 군부 정부는 현재의 통치를 굳혀나가는 상황입니다. 쇼핑몰들에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부자들은 돈이 있는데, 대치 상황이 이어지니 돈을 쓰지 못하다가, 더 이상 집에 갇혀있지 않으려하는 듯 쇼핑하고 있고요. 반면에 가난한 도시 일꾼들은 직업을 다시 얻어서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듯 하고요. 한인들이 주로 많이 운영하시는 이곳의 봉제공장이 쿠데타/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이제 거의 85%정도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 토 요 새 벽 예 배

6일 / 오전 6시 30분

예배초청 / 웨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실로암)  
내가 매일 기쁘게(191)

교독문 29번 / 시편 65편

찬양 / 피난처 있으니(70)

기도 / 신동심 권사

찬양 /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기쁨105)

성경봉독 / 창세기 3:1-13

말씀 / 민경엽 목사

## “네가 어디 있느냐?”

찬양 / 부르신 곳에서(기쁨238)

인사와 교제 / 다같이

찬양 /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기쁨525)

### □ 미얀마에서 온 편지(계속).....

3-5월 더운 여름에 전기사정이 너무 나빠져서 하루에 4시간씩 두 번이나 정전되고, 사정이 나쁜 교외 지역은 하루에 4시간정도밖에 전기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기가(6-10월) 시작된 후로는 수력발전량이 늘어나서인지 저희가 사는 지역은 거의 정전이 없고, 사정이 나쁜 지역이 한 4시간정도 정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가 없는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되면, 발전기 틀고, 선풍기와 TV를 켜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습하고 더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강의하면서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제 밤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제자가 오늘 아침에 뇌종양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딸아이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귀한 자매인데, 이런 일이 있네요. 아침에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항암 하는 친구들, 수술하는 분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네요. 아마 제 나이가 그런가 봅니다. 어쨌거나 기도시간마다 첫 번째 기도제목이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심장, 치아, 어깨오십견, 관절, 꼬리뼈 등등 여러 곳이 편치 않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이 나이에 이곳 미얀마에서 살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보에 계속)

2022년 7월 조현직, 정윤의 선교사 올림

주일(7)	월(8)	화(9)	수(10)	목(11)	금(12)	토(13)
렘19-21	렘22-24	렘25-27	렘28-30	렘31-33	렘34-36	렘37-39